

# 남몰래 흘리는 눈물 | Una Furtiva Lagrima | 오페라 「사랑의 묘약」 중에서

오페라 「사랑의 묘약」의 내용을 알고 노래 부를 수 있다.



도니체티 작곡 | 이유선 역사

**Larghetto**

Gm dolce D7 F#dim 짧게 끊어서 Gm

남 몰 래 흘 린 내 눈물 - 두 뺨 에 흐 - 르 네  
 U - na fur - ti va la - gri - ma negli oc - chi suoi - spun - to  
 우 나 푸르 띠 바 라 그리 마 - 넬 리 오 끼 수오이 - 스푼 또

Gm F Bb Am A7 D7 Gm

내 게 로 향 한 생 각이 진 정 - 한 사 랑 이 요  
 quel - le fe - sto - se gio - va ni in - vi - di ar - sem - bro;  
 꾸엘 레 페 스토 제 지오 바 니 인 비 - 디 아르 - 셴 브로

D7 Gm D7 Gm D7 Gm D7

나 흘 로 갈 구 하 는 바 로 그 사 랑 일 세  
 che piu cer - can - do io vo? che piu cer - can - do io vo?  
 게 배우 체르 칸 - 도 이오 보 게 배우 체르 칸 도 이오 보

Bb Ebm Bb F7 Bb D7

진 정 그 대 - 의 빛 - 난 사 랑 깨 달 았 네  
 M'a - ma, si, m'a - - ma, - lo ve do, lo ve - do  
 마 마 씨 마 - - 마 - 로 베 도 로 베 - 도

1 악곡을 원어로 읽어 보고, 정확한 음정으로 악상 기호를 살려 노래 불러 보자.

2 오페라 「사랑의 묘약」을 감상하고,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.



Gm D7 F#dim Gm

17 깊 속 이 숨 긴 사 랑 과 남 몰 래 내 는 한 숨  
 Un so - lo i - stan - te i pal - pi - ti del suo bel cor - sen - tir!  
 운 쓸 로 이 스탄 떼이 빨 뻐 띠 델 수오 벨 꼬르 - 셴 띠르

Gm F Bb Adim C#dim7 D7 Gm

21 나 흘 로 들 는 이 - 기쁨 그 대 의 한 숨 - 소 리 나  
 I miei so - spir con - fon - de - re per po - co a' suoi so - spir!  
 이 미에이 쏘 스페르 곤 폰 - 데 레 페르 쏘 꼬 아수오이 - 쏘 스페르 이

D7 Gm D7 Gm D7 Gm D7

25 흘 로 들 는 내 기쁨 이 라 나 흘 로 들 는 기쁨 이 로 다  
 pal - pi - ti, i pal - pi - ti sen - tir! con - fon - de - re i miei co' suoi so - spir!  
 빨 뻐 띠 이 빨 뻐 띠 셴 띠르 곤 폰 데 레 이 미에이 꼬 수오이 쏘 스페르

G D7 Em Am G D7 G D7

29 다 시 없 을 - 기쁨 생 - 각 - 할 - 때 면 내 가 숨 뒤편 네 아  
 cie - lo, si puo - mo - rir, di - piu - non - chie - do, non chie - do; ah!  
 치엘 로 씨 푸오 - 모 리르 디 - 배우 - 논 - 끼에 도 논 끼에 - - 도 아

G D7 Em Am G D7 G

33 다 시 없 을 기쁨 - 이 - 여 내 가 - 숨 - 뒤편 네 가 숨 뒤편 네  
 cie - lo, si puo, si puo - mo - rir, di piu - non - chie do, non chie - do.  
 치엘 로 씨 푸오 씨 푸오 - 모 - 리르 디 배우 - 논 - 끼에 도 논 끼에 - - 도

이 노래는 오페라 「사랑의 묘약」 제2막에 나오며, 극 중 네모리노가 부르는 테너 아리아\*이다. 아디나는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네모리노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, 이를 사랑의 묘약이 갖는 효력이라고 착각한 네모리노가 설레는 마음으로 부르는 구슬픈 단조 가락의 노래이다.

\*아리아 | 주인공이 부르는 서정적인 노래

## 더 알고 가기 오페라 「사랑의 묘약」

### 줄거리

지주의 딸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농부 네모리노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 속 사랑의 묘약을 알게 되고, 약장수 돌카마라에게 약을 사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. 네모리노는 새로운 묘약을 살 돈을 벌고자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, 아디나는 네모리노가 자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군대에 들어가려 했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두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.

